

#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4년 중임 개헌도 제안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 순방이 국가 위상 훼손  
야당·언론에 책임 전가 성공 못해”  
“기본사회 30년 준비 시작해야”  
“부자감세 최선 다해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리는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충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흑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책임은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제

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또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는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서민예산 삭감 등을 언급한 뒤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공간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선언했다.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사회론의 골자다.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호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제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를 비판하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힘 “국민 갈라치기로 갈등만 조장”

### 이재명 대표 국회연설 혹평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외교 참사’, ‘국격 훼손’이라 비판한 데 대해선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맞섰고, 개헌 제안을 두고는 “민생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잊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와 평가가 경제라는 구호도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잊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이 없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인 ‘민생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참사 규정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밝혔다.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흔히 4년 중임제(로의 개헌)를 말하지만, 그것도 여러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연설 총평에 대해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 하셨다”며 “그렇게만 되면 유투피아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기현 “안철수·유승민 이미지 관리·내부총질”

### 차기 당권 경쟁자 공개 저격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8일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저급한 음모론에 맞서야 할 우리 당의 몇몇 지도자급 인사들이 당의 위기 상황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방관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유희를 따지며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 진영과의 논쟁을 회피해 버리고, 하나 하나 양면론적 평론을 펼치다가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해외로 철수해 버린다면 그것은 동지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진영의 터무니없는 가짜 조작방송에 현

혹돼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자당의 대통령과 당을 공격하며 ‘내부총질’을 한다면, 그것 또한 동지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 강경대치 국면에서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의 행보를 각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 당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샌님’ 같은 이미지 정치, 그때그때 간을 보다가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정치’, 내부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저들에 맞서, 맨 앞에 나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2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장애인좌식)**

2022. 10. 01 SAT ~ 10. 02 SUN(2일간)

장소: 페퍼스타디움·장애인국민체육센터·빛고을체육관

주최: 광주광역시배구협회·대한장애인배구협회  
주관: 광주광역시배구협회·대한장애인배구협회  
후원: 페퍼저축은행·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광주SNC